

빛과 쟁이

“회사에서도 얼마 같은 마음쓰쓰이기가 여성 CEO로서의 매력 아닐까요”

엠티엠옵틱스(주) 임홍순 사장

오창과학단지 최초 여성 CEO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엠티엠옵틱스의 임홍순 사장은 광학업계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여성 CEO이다. 올해로 창립 6년째를 맞은 엠티엠옵틱스는 LCD TV와 PDP 편광판에 들어가는 편광필름 가공 분야에서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일본계 회사로 직원 수만 600여명에 이른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당차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임홍순 사장을 만나보았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오창과학단지 최초 여성 CEO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엠티엠옵틱스의 임홍순 사장은 광학업계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여성 CEO이다.

오창과학단지 안에 자리한 엠티엠옵틱스에 첫발을 들여놓자마자 갖은 느낌은 ‘깔끔함’으로 표현해야 할까. 마치 어머니의 손길로 정성껏 쓸고 닦고 정돈한 느낌처럼...

임홍순 사장은 “편광필름 공정 특성상 깨끗한 환경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 선진국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마음가짐, 행동 양식, 주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회사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엠티엠옵틱스(주)는 디스플레이산업에서 LCD TV와 PDP 편광판에 들어가는 편광필름 가공 및 광학설계를 하는 일본계 회사이다. 지난 2003년 6월 13억 5,000만원을 투자해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6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실 프로젝션 TV에 들어가는 후레엘 렌즈 시장 진출을 목표로 회사가 설립됐으나 갑작스런 LCD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사업 아이템을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LG화학과 함께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편광필름 공동개발에 나서 착실한 준비를 해오며 지금은 마이크로 렌즈 필름쪽의 독보적인 기술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 매출액도 지난 2006년 40억원에서 올해는 200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급성장세를 이루었다.

임홍순 사장은 “지난 6년간 LG화학과 호흡을 맞추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온 결과 심지어 160%까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현재 시장 물량에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독자적인 아이템 개발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립당시 초기 멤버 20여명에서 시작하여 6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의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6년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상황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임홍순 사장의 변치 않는 성공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기업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는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이다.

마인드는 끊임없는 공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 자신의 역량을 갖춰냈을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립초기부터 직원들에게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라고 강조했어요. 무엇이든 기초가 되어 있을 때 남이 나에게 숙제를 주는 것이고 그 숙제를 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숙제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때 익힌 일본어가 수준급인 임 사장은 중국어도 능통한데 요즘에는 아침운동하면서 짬짬이 영어공부에도 매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직원들에게도 외국어는 물론, 회계, 전산, 기업경영 등을 두루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임홍순 사장이 또한 남다른 것은 여성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갖고 있는 따뜻한 모성애를 바탕으로 ‘가족적인 회사’와 ‘투명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들로 이뤄진 회사 특성상 이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기업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사내에서 직원간 언행, 처우 등에 있어 좀 더 세심한 배려에 신경쓴다. 충북여성인력개발거점기관인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일촌기업’에도 동참하여 주부사원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월차제도 개선, 여성휴게실 마련, 승진·채용 때 성적 차별 금지 등 여성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직원들과의 대화에 온 힘을 쏟는다. 한 주에 한 번씩 직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사회 선배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그녀가 경험한 것과 느낀 점들을 직원들에게 들려주는가하면 지난 한주동안 근무성과가 좋은 우수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임홍순 사장은 “요즘에는 지식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쉽게 포기하고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터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임홍순 사장이 광학과 인연을 맺게된데는 실로 ‘우연’한 기회였다고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본어 통역일을 하면서 가이드와 여행객으로 만나게 된 히야마 마사요시 엠티엠옵틱스 대표이사가 한 눈에 임 사장의 성실함과 재능을 알아보고 사업 제의를 해오면서 본격 광학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내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말은 안 해도 주의에서 알아주게 돼있다”고 말하는 임홍순 사장은 이러한 믿음이 지금의 그녀와 엠티엠옵틱스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다. 특히 그녀는 “지금까지 믿고 투자해주신 히야마 마사요시 대표와 지금껏 함께해온 LG화학 관계자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 엠티엠옵틱스의 창립 5주년 기념 어울림때 광경